

# 광주 주택 인허가 ‘반짝 반등’... 매매시장도 회복세

### 3월 인허가 1198호 작년동월비 9115.4% 급증 매매 2000건 유지...준공후미분양 석달째 감소

광주지역 공동주택 분양이 6개월째 0건으로 실적이 없었다. 하지만 인허가가 큰 폭으로 늘고 주택매매거래가 2000건을 유지하면서 시장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낳았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도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3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월 주택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광주지역 주택 매매 거래량은 2047건으로 전월(1417건) 대비 44.5% 증가했지만 전년 동월(2075건)보다 1.3% 감소했다.

전남은 2212건으로 전월(1989건) 대비 28.2% 증가하고 전년 동월(2087건) 대비 6.0% 늘었다.

전월세 거래량은 광주 4849건, 전남은 4609건으로 집계됐다. 광주는 전월(4781건) 대비 1.4%, 전년 동월(4835건)

대비 0.3% 증가하고, 전남은 전월(4262건) 대비 8.1%, 전년 동월(4582건) 대비 0.6% 늘면서 모든 수치가 증가했다.

다만, 광주지역 분양(공동주택 기준)은 지난해 9월 571호 이후 6개월째 0호로 공급이 없었다. 전남의 경우 올해는 지난 2월까지 0호이었지만 지난달 1365호가 분양됐다.

착공도 같은 기간 광주는 8호로 81.8% 줄었지만 전남은 1832호로 839.5%가 늘었다.

다만 광주 준공은 3276호로 전년동월(1722호)보다 90.2%가 늘고 인허가는 1198호로 전년동월(13호) 대비 9115.4%가 급증했다.

전남은 준공이 149호로 전년 동월(2015호) 대비 10.2% 감소했지만 인허가는 399호로 전년 동월(238호) 대비 67.6% 늘

었다.

지난 3월 미분양 주택 수는 광주 1302호로 전월 대비 17호(1.3%) 감소하고, 전남은 3072호로 503호(19.6%) 증가했다.

다만, 광주는 악성 미분양으로 알려진 준공 후 미분양 주택도 지난해 12월 781호에서 3072호로 503호(19.6%) 증가했다.

전남 준공 후 미분양은 1945호로 지난 2월(1926호)보다 소폭 늘었다.

전국적으로는 지난 2월 14년 만에 3만 1000호가 넘어갔던 준공 후 미분양이 전월보다는 줄었으나 여전히 3만가구를 웃돌았다.

지난 3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5283가구로 전월 대비 1.4% 줄었다.

준공 후 미분양(3만429가구)도 전월보다 2.8% 감소했다.

준공 후 미분양 중 약 85.5%가 지방 소재 주택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4050가구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남(3528가구), 부산(3035가구),

경북(3004가구), 경기(2547가구), 충남(2539가구), 제주(2210가구) 등 순이었다.

비 아파트를 포함한 3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7만1975건으로 전월 대비 24.6% 증가했다.

수도권(3만6008건)은 22.2%, 서울(1만 1010건)은 16.3% 각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방은 27.0% 증가한 3만5967건을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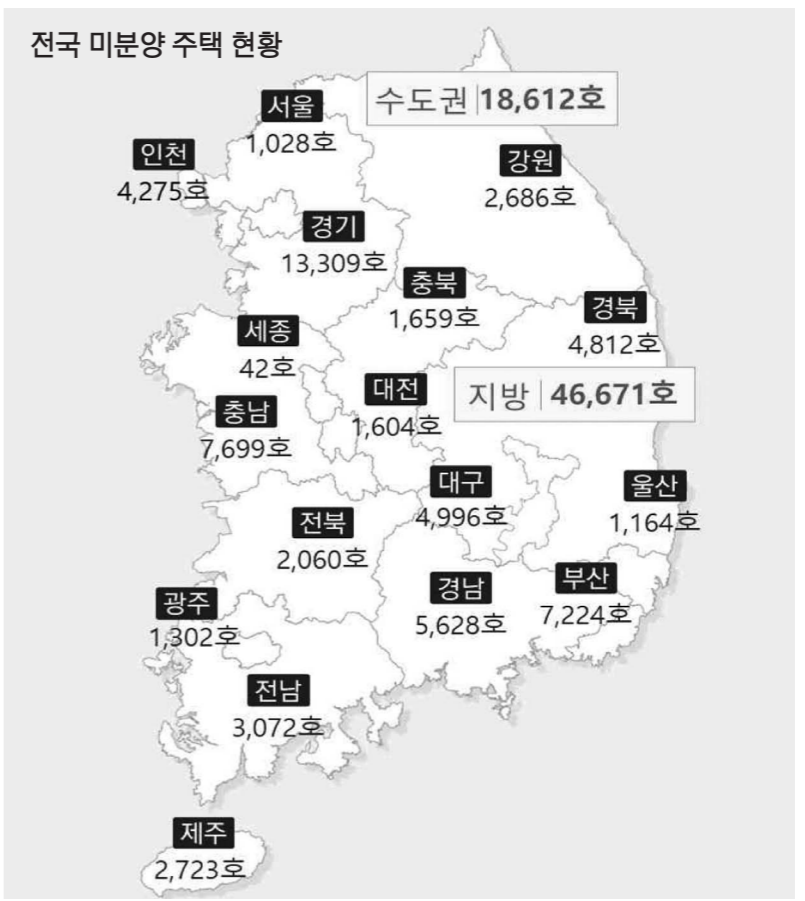
아파트 거래량은 5만6604건으로 같은 기간 24.5% 증가했다. 수도권(2만6544건)은 22.2%, 서울(6433건)은 14.9% 각각 거래가 늘었다.

신규 기준 전국 전월세 거래량은 전월 대비 10.4% 증가한 27만9688건이었다.

유형별로는 전세(8만6775건)가 같은 기간 13.7%, 월세(19만2913건)는 8.9% 각각 늘었다.

다만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전세는 11.0% 감소한 반면 월세는 36.3% 증가했다.

임재용 기자 djawodyd0316@gwangnam.co.kr



광주은행은 최근 광주시 남구시설공단과 '금고업무 취급 약정'을 체결했다.

## 광주은행, 남구시설공단과 금고업무 약정 “안정적 자금관리 등 공공금융 역할 강화”

광주은행(은행장 정일선)은 최근 광주시 남구시설공단과 ‘금고업무 취급 약정’을 체결하고, 주거은행으로서 금고업무를 수행한다고 3일 밝혔다.

약정에 따라 광주은행은 오는 2028년 4월 30일까지 2년간 공단의 각종 수입금 수납 및 보관, 경비 지급, 현금 수납·지급, 일상경비 출납 및 보관 등 금고업무 전반을 맡는다.

남구시설공단은 남구 지역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운영되는 지방공기업으로,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

강지훈 광주은행 부행장은 “철저한 자금 관리와 안정적인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해 공단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지역 공공금융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형진 광주시 남구시설공단 이사장은 “이번 약정을 통해 공단의 자금 관리 체계를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광주은행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주민 편의 증진과 공공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 신복위 순천지부, 취약계층 재기지원 ‘앞장’ 전남금융복지상담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신용회복위원회 순천지부는 최근 전남 금융복지상담센터와 ‘전남도 내 경제적 취약계층의 재기지원을 위한 복합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채무조정 및 금융복지 서비스 연계로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상담·사례관리·금융지원 통합 연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과다 채무를 보유한 도민 대상 맞춤형 상담 및 경제적 재기 통합 지원, 상담·사례관리·신용회복 지원 연계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인권 증진, 기관 간 협력 기반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등이다.

손용찬 신복위 순천지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금융취약 계층을 비롯한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용회복지원과 금융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전남도금융복지상담센터와 협력해 지역사회 금융 취약계층의 경제적 회복과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전

했다.

서중열 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남도 내 금융 소외 계층은 채무조정 뿐만 아니라 복지와 법률 상담까지 아우르는 윈윈을 통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도민들의 경제적 안정과 행복한 삶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재용 기자 djawodyd0316@gwangnam.co.kr



## 전남 농수산물 수출 20.9% 증가... 3월까지 2억1700만달러

### 김등 가공식품 성장 견인...러시아·중국 등 주요 시장 확대 도, 중등 물류비 급등 대응 지원...수출기업 현장 대응 강화

전남도 농수산물 수출이 올해 들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도는 3월 말 기준 농수산물 수출액이 2억1700만달러로 집계돼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9%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전국 평균 증가율 7.4%의 약 3배 수준이다.

품목별로는 김이 전체 수출을 견인했다. 김 수출액은 1억800만달러로 13.6%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조미김은 6600만달러로 20.2% 늘었다. 스낵김 등 가공식품 수요 확대가 수출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가공식품 분야에서는 음료 품목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일본과 중국에서 각각 121.1%, 237% 증가하면서 전체 음료 수출액은 1500만달러로 63.7% 확대됐다.

수산물도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였다. 미역은 904만달러로 97.9% 증가하며 두 배 가까운 성장률을 기록했다. 전복은 10.9%, 분유는 28.1% 증가하는 등 주요 품목이 고르게 증가했다.

수출 시장도 넓어지고 있다. 러시아가 69.7%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중국(25.8%), 미국(24.4%), 일본(14.8%) 등 기존 주요 시장에서도 안정적인 증가세를 유지했다. 여기에 폴란드 등 유럽 국가 수출이 47% 이상 늘면서 아시아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는 흐름도 확인됐다.

다만 중동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해상 운임 상승과 원자재 가격 부담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전남도는 이에 대응해 수출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초부터 멕시코와 인도네시아 등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하고, 해외 박람회 참가와 판촉 활동을 확대했다. 지난 3월에는 수출기업 간담회를 열어 현장 애로

점을 점검했다.

수출 농어가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특화품목 직불금 43억원을 투입하고, 수출 중소기업에는 최대 600만원까지 수출보험료를 지원한다.

4월부터는 중등 분장에 따른 물류비 상승에 대응해 수출기업 100여개사에 최대 700만원, 그 외 기업에는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총 3억6000만원 규모의 긴급 물류비 지원도 시행 중이다.

신현호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대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현장 애로를 신속히 반영해 대응하고 있다”며 “수출기 시장개척단을 파견하고, 해외 박람회 참가와 판촉 활동을 확대했다. 지난 3월에는 수출기업 간담회를 열어 현장 애로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 신협 광주전남본부, 공제사업 경쟁력 ‘최우수’ 장기보장성 점유율 전국 1위...조합·개인 수상 잇따라

신협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가 전국 공제사업 평가에서 장기보장성 공제 점유율 1위를 기록하며 최우수 지역본부로 선정됐다.

신협 광주전남본부는 최근 신협중앙연수원에서 열린 ‘공제 54주년 2025년 공제 시상식 및 2026년 비전선포식’에서 장기보장성 공제 점유율 부문 전국 최우수 지역본부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한 해 공제사업 추진 과정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조합과 임직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2026년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시상은 보장성, 저축성, 일반손해, 장기공제 달성률, 농·소형조합 달성률, 지역별 장려상, 개인 및 공로상, 최우수 지역본부 등 9개 부문에 걸쳐 진행됐다.

광주전남본부는 장기보장성 공제 점유율에서 두드러진 실적을 기록하며 전국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확인했다.

개별 조합들의 성과도 고르게 이어졌다. 보장성 부문에서는 두암신협이 전국 2위에 올랐고, 끝말신협(5위), 광주문화신협(6위), 광주어룡신협(7위), 목포신협(8위)이 뒤를 이었다. 저축성 부문에서는 우산신협이 7위를 기록했으며, 일반손해 부문에서는 광주문화신협이 3위를 차지했다. 장기공제 달성률 부문에서는 광주전남치과과의사신협이 5위에 이름을 올렸고, 지역별 장려상은 광주중부신협이 수상했다.

개인 부문에서도 성과가 이어졌다. 두암신협 이정현 차장은 보장성 부문 전국 2위를 기록했으며, 공로상에는 끝말신협 김윤대 과장, 나주신협 최봉조 차장, 목포대성신협 이선재 부장, 끝말신협 윤현철 차장이 각각 선정됐다.

윤병재 신협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준 임직원들의 노력이 값진 성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조합원 중심의 공제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신뢰받는 금융서비스 제공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협중앙회는 이날 비전선포식에서 ‘함께 만든 성과, 더 크게 여는 신협 공제의 내일’을 2026년 공제사업 비전으로 선포했다. 구체적으로 △조항원 중심 보장성 상품 경쟁력 강화 △현장 영업 지원 확대 △공제 서비스 품질 제고 △조합과 중앙회 간 협력 기반 강화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



광주지방국세청은 최근 광주·전남·전북지역 납세자를 대표하는 상공회의소 회장단을 초청해 ‘국세행정 설명회’를 가졌다.

## 광주국세청, 상의 회장단 초청 설명회 세무조사 혁신 방안 등 안내...간담회 후속조치 공유도

광주지방국세청이 광주·전남·전북 지역 납세자를 대표하는 상공회의소 회장단을 초청해 ‘국세행정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김학선 청장이 취임 이후 각 지역의 상공회의소를 순회하며 진행한 현장 소통 간담회를 마무리하는 자리로, 종전의 간담회 형식에서 벗어나 올해 국세청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세무조사 혁신방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그동안 수렴한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을 공유했다.

광주국세청은 국세행정 AI 대전환, 국세제납관리단과 국세외수입체납관리단 출범, 간이과세 배제기준 전면 정비 현황 등을 설명하고, 납세편의와 지역경제 활력 제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광주청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적극행정 추진사항을 상세히 소개했다.

세무조사 혁신방안으로 ‘정기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중점 검증항목 사전 공개’ 등도 안내했다.

이와 함께 그간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세정지원 확대, 세무조사 부담 완화, 세법 개정 등 불합리한 제도 개선, 납세자를 위한 혜택 확대 등 총 51건의 건의사항 중 수용이 가능한 사항은 세정에 즉시 반영하고,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세법 개정안을 제출해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학선 청장은 “그동안 각 지역에서 들려주시는 현장의 목소리는 국세행정의 중요한 기준이 됐으며, 기업과 함께 성장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동반자로서 상공회의소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